

 농림축산식품부	보도자료	정부혁신 보다 나은 정부
2019년 12월 11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과장 이기중(044-201-2551), 사무관 황성철(2555) / 제공일: 12월 10일(총3매)		

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

전국 축산시설 일제 소독으로 조류인플루엔자 예방

- 야생조류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지속 검출, 위험시기 방역강화 -

《 주 요 내 용 》

◆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12월 11일과 12일 이틀 간, 전국 축산시설 일제 소독 추진

○ 소독 대상(총 891개소*)은 가금류 도축장, 사료공장, 분뇨·비료업체, 계란유통업체 등 축산차량 출입이 많은 시설임

* 도축장(50개소), 사료공장(86), 분뇨·비료업체(291), 계란유통업체(111), 부화장(180), 왕겨업체(173)

○ 각 축산시설은 시설 내외부와 차량 진출입로, 소유 차량 등을 일제히 청소·소독하고 추워진 날씨로 소독시설이 얼거나 동파되지 않도록 보온 설비 등 정비

◆ 야생조류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지속 검출되고 있어, 과거 발생 시 주요 전파요인으로 지적된 축산차량에 대한 철저한 방역관리가 필요한 상황

○ 축산차량은 철새도래지에 진입하지 않고 우회 통행, 농장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*하는 등 방역대책에 적극 협조 당부

* 부득이한 경우 농장 전용차량을 이용하거나, 3단계 소독(축산시설 소독 → 거점소독시설 소독 → 농장 입구 소독) 실시 후 진입

□ 농림축산식품부(장관 김현수)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12월 11일과 12일 이틀 간, 전국 가금 관련 축산시설을 대상으로 일제 소독을 추진한다.

○ 소독 대상은 총 891개소로, 전국 가금류 도축장(50개소), 사료공장(86개소), 분뇨·비료업체(291개소), 계란유통업체(111개소), 부화장(180개소), 왕겨업체(173개소) 등 축산차량 출입이 많은 시설이다.

○ 해당 시설은 이틀 간 시설 내·외부와 차량 진출입로, 가금 계류장 등을 일제히 청소·소독하고, 추워진 날씨로 소독 시설이 얼거나 동파되지 않도록 보온시설 등을 정비한다.

○ 농식품부는 원활한 일제 소독 추진을 위해 지자체와 함께 전국 축산시설과 축산차량 운전자 등에 대한 홍보(문자, SNS 등)와 소독 여부 확인을 위한 점검, 겨울철 소독제 사용요령*에 대한 지도를 함께 실시한다.

* 낮은 온도에서는 소독제 효력이 저하되므로 소독제에 표시된 높은 농도(유기물 조건)로 희석해 사용, 저온에서 효과적인 산화제 계열의 소독제 사용 등

□ 농식품부는 전국적으로 겨울철새 유입이 증가하고 야생조류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지속 검출*되고 있으므로 가금농가와 시설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 전파 요인이 될 수 있는 축산차량에 대한 통제와 소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였다.

* 2019.10.1.부터 현재(12.8.)까지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16건 검출

○ 농식품부는 현재 축산차량이 철새도래지*에 접근하면 차량에 설치된 차량무선인식장치를 통해 진입금지 음성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,

* 철새도래지 중 과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, 가금 밀집 지역 등 위험도가 높은 79개소에 대하여 실시 중

○ 축산차량은 가금농가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유입되지 않도록 철새도래지 진입을 금지하고 우회하여 통행하는 등 강화된 방역대책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.

○ 또한, 가금농가는 축산차량의 농장 내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위험요인을 최소화하여야 하며, 부득이하게 출입 시에도 농장 전용차량을 이용하거나 농장 방문 시 마다 3단계 소독* 실시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.

* 축산시설 소독 → 거점소독시설 소독 → 농장 입구 소독

※ 관련 영상 및 사진 12.11일 09시경 제공 예정